제6차 국어교육학회 세미나

국어교육의 이론2: 독자 반응 이론과 문학 교육

2023.8.11.(금)



"독자 반응 이론과 문학 교육" 제

프로그램

Moderator

아 내

고정희 교수 (서울대)

시

2023. 8. 11. 금요일

13:00-16:00

독일 수용미학의 이론과 적용

김용현 교수 (고려대)

장 소

Zoom 화상 회의실

회의 ID: 408 484 3455

https://us06web.zoom.us/j/4084843455?

pwd=bW9McklMWC94c0g5MHNLOFg0N

비밀번호: 0811

m1uZz09

Reader-Response Theory in Literature Circles

Erik Robb Thompson 교수 (가톨릭대)

대학원생, 신진 연구자, 국어 상 대

독자 반응 이론의 문학교육적 활용 강민규 교수 (서울대)

의

koredu1991@daum.net

교육 관련 학문 전공자 등

※ 본 세미나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연회비로 진행됩니다. 연회비(3만원) 계좌: 우체국 012542-01-003141(예금주: 국어교육학회)

강연 소개



김용현 교수

- 현 고려대학교 교수, 고려대학교 교수의회 의원
- 전 건국대학교 조교수
- 전 서울여자대학교 조교수

독일 수용 미학의 이론과 적용

본 강연은 독일 수용미학의 생성, 전개,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 이론이 현재 가지는 의미, 역할 등을 함께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행위로서의 읽기 과정, 매체로서의 텍스트 종류, 해석을 둘러싼 문학교육 방법 등을 독자의 인식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텍스트 해석 중심의 문학 연구 및 교육의 한계와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rik Robb Thompson, professor

- 현 가톨릭대학교 교수
- PhD from University of North Texas
- Published articles on Wallace Stevens, Joseph Conrad, and on pedagogical approaches to reader response theory

Reader-Response Theory in Literature Circles - Arena for Discovering the Ideal Reader

My interest in reader response theory developed through 'literature circles,' which are collaborative and student-centered reading groups that draws students into increasingly abstract and relevant discussions about literature. This presentation proposes a way to think about literature circles vis-a-vis a Winnicottian psychoanalytic approach to reader-response theory. One conclusion is that reader-response theory put into a pedagogical practice in the form of literature circles emphasizes the student's 'true self,' which includes his or her own experiences in interactions with a text that can be theorized as a transitional space. Another conclusion to be explored is the possibility of an "ideal reader" in a multi-cultural reading community.



강민규 교수

- 현 서울대학교 조교수
- 전 강원대학교 조교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부연구위원
- 서울대학교 박사
- 현대시 교육 연구, 문학 교육 연구

독자 반응 이론의 문학교육적 활용

이 강연에서는 독자 반응 이론이 문학교육에서 그동안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향후 어떠한 쓰임새가 있을지를 논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활용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론적 편향을 검토하는 한편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여전히 주목할 만한 이론상의 쟁점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학교육의 거시적인 국면에서 이 이론이 가지는 의의와 인접 이론과의 관계를 밝히고자 합니다.